

활기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점 孫井植 特務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ISSN 1227-7053 TEL. 568-6651~2
568-5595~6
등록일: 1988년 2월 19 FAX. 568-6653

漁港事務所 · 어촌지도소 지방청으로 統合 여수 목포등 4개 地方廳에만 어항공사과 新設

본부 漁村開發局에 漁村계획 · 漁港개발 등 5개課

꿔 어업진흥국으로 옮겼다. 이와함께 지방해양수산청 장에는 수산직도 보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여수 지방청장의 직급을 3급에서 2-3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11개 지방청에 편제된 어촌지도과는 인천 부산 지방청에만 과장이 서기관급으로 돼 있으며 나머지는 과장이 5급으로, 그리고 어항공사과가 신설된 4개 지방청 중 마산 지방청만 서기관급이 과장에 보직토록 했다.

해양수산부 직제 개편

정부는 해양수산부 조직을 개편, 지난 5월 24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편된 조직은 과거 수산관련 하부조직인 어항사무소와 어촌지도소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흡수 통합, 명칭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본부의 국, 과는 명칭과 편성이 일부 조정되었다.

개편직제에 따르면 동서남해 어항사무소의 업무가 11개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분산, 여수 목포 마산 포항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신설 어항공사과로, 나머지 7개 지방청에는 기존의 공사과로 통합됐다. 27개 어촌지도소의 업무는 11개 지방청에 어촌지도과를 신설하여 그 업무를 맡게했다.

본부의 수산관련 조직은 수산유통국을 수산정책국, 수산자원국을 어업진흥국, 수산진흥국을 어촌개발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리고 어촌개발국의 어촌개발과를 어촌계획과로, 어항과를 어항개발과로, 어업인복지과를 어업인육성과로 바꾸었으며, 수산정책과가 수산정책국으로 옮겨가고 수산자원국의 자원조성과와 수산진흥원의 어촌지도과가 새로 편입됨

로써 어촌개발국은 5개 과로 재편됐다.

또 어선과는 해운선박국에서 어선정책과로 명칭을 바

어항공사 계약 행정에 관한 어항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5공, 6공을 지나 문민정부가 들어서서도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 정부 행정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느라 행정인력이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어항공사는 다른 일반적인 공사와는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오히려 온난한 기상을 보여 한달에 20여일 이상 작업이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 시기에 맞춰 서둘러 설계일정을 잡고 한시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당국에 계약요청을 하지만 정작 너무도 무감각하다. 물론 계약당국도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속사정이야 있

어항시설범위 크게 확대키로

관광위락시설 유통판매장 등 시설 어항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어항시설의 위관장, 급유시설 등 기능시설뿐만 아니라 기본시설인 방파제, 물양장에도 민자유치가 가능하게 된다. 또 어항구역에 관광위락시설과 수산물유통판매장, 수산물처리 가공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되는 등 어항시설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어항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기관과 협의의를 거쳐 올해안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항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어항시설의 경우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위관장이나 급유시설, 냉동창고 등 육상 기능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민자유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방파제나 물양장 등 어항기본시설에도 민자유치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민자참여 대상에는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하역업체 등 모든 실수요자를 참여시킬 계획이며 건

설업체 등이 어항기본시설에 투자할 경우 사용료 징수와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어항구역에 방파제, 물양장 등 기본시설과 냉동창고, 급유시설 등 기능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숙박시설을 비롯 목욕, 휴게실, 낚시터, 유어선, 모타보트 등 관광과 관련한 위락시설과 위관장, 종합어시장, 수산물처리 가공시설 등도 들 어설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국동 · 아야진항등 4개항 새로 정비키로 시설확충 노후시설 보강

해양수산부는 이용어선수 증가 등 항세신장 및 여건변화에 따른 어항시설의 확충과 기존 노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96년도에 어항시설 정비계획조사를 실시한 여수 국동항 등 4개항을 새로 정비하기로 했다. 또 방파제 연장 등 기본시설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웅진군 덕적면 울도항의 시설계획을 변경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정비계획에 따르면 대상항은 여수 국동항(제1종), 강원 고성군 아야진항(제1종), 양양군 남애항(제1종) 및 신안군 소흑산도항(제3종) 등 4개항

으로 주요 정비 시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수 국동항 : 소형 어선용 물양장 확장, 어류 축양장 활어 운반을 위한 도선장 계획, 소형어선 수리를 위한 선양장 계획, 도서민의 생활 필수품 운반용 부두시설, 이용도 제고를 위한 노후 취락시설 보강계획, 항내 해안선 정비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항, 양양군 남애항 : 어선용 물양장 부족시설 확보, 시설물의 안전도 확보를 위한 노후 취락시설 보강계획, 수역 이용도 제고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항내 노출암 제거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항 : 항내 표사매몰 및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방사제 위치 조정, 항내 정온수면적 확대 방안 마련, 어선용 물양장 정비 및 확충, 여객선 부두 신설, 시공성 및 항내 해수순환 원활 제고를 위한 파제제 단면 조정 △인천시 옹진군 울도항 : 지방어선 및 일부 외래어선의 대피기능 제고와 소형어선의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방파제 시설계획 184m를 350m로 연장,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여객부두 45m 신설 등이 다

계약행정 개선되어야 한다

어항공사는 해안 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매년 여름철 태풍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으며, 특히 마무리되지 않은 주요 시설물은 자칫 유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항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요, 어항공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오고 있는 어항공사에 있어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매년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태풍기 이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설계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태풍진로권에 위치한 어항은 이런 피해를 감안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설계일정을 결정해 계약당국에 계약 요청을 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항공사를 두고 한쪽에서는 숨넘어가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반해 계약당국은 너무 여유만만이다. 앞서 말한 어항공사의 특수성이 아직껏 받아들여지지 않고 편의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국가적 개인적 재산의 낭비와 피해로 이어진다. 즉, '계약지연→착공지연→태풍기 이전 주요공종 마무리불가→태풍 내습→피해발생'이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남쪽지방의 어항공사를 예로 들어보자. 이 지역은 잦은 장마와 태풍내습 등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실제 작업일수가 한달에 10일이 채 못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년 바에야 개선이 필요하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시담이 끝나고서도 2주일 이상 걸리는 계약행정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사소한 관심과 개선의 노력이 그동안 없었기에 어항공사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해 왔다. 근근히 첩첩산중의 난관을 뚫고 5-6월경에야 비로소 어항공사를 착공하려면 곧바로 장마 태풍기를 맞게 된다. 문제는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유실되면 과연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하는 점이다. 시공업자일까? 정부일까? 결국 국민 전체의 손해가 되고 만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세계는 좁아지고 있다. 국경 없는 세계란 말도 나오고 21세기에는 민족국가의 개념도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행정업무도 변모해야 한다.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수행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나아가 국민의 요구에 맞게, 국민의 생활 환경에 맞게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정 업무는 국제사회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거듭나는 자세로 피나는 개혁과 개선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 시작의 하나로 계약당국의 행정 과정의 개선을 요구한다. 이는 요즘 한창 어려운 국가 경제도 살리고 민간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절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상장애 등 공기한계
착공지연은 건설시공에 차질 우려
어항공사 특수성 충분히 반영돼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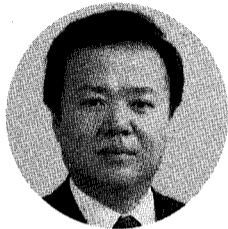
정

「21세기 해양시대 대응전략」 강연



辛相佑 해양수산부장관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해양수산관련단체 업체 및 학계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7 해안방지 세미나를 개최, 23일에는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초청으로 「21세기 해양시대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



孫井植 한국어합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5월2일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위원 주재 분과위원장단 간담회에 참석, 19일에는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3개국에 제10차 해외선진어촌시찰단을 파견, 21일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한 한바다 최고경영자 조찬모임 「경제환경변화와 공정거래시책방향」에 대한 전문철 공정거래위원장 초청강연에 참석, 이어 정무제1장관실에서 주관한 「21세기의 정치와 리더쉽의 방향」에 대한 국제정책토론회 참석, 22일에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정기총회 및 「최근 경제현황과 향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강경식 부총리 초청 조찬강연회에 참석, 이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최한 제12회 정신문화포럼 「부끄러운 우리 교통문화」에 참석, 이어 제2회 바다의날 기념 우리 수산물대축제 개장식에 참석, 23일에는 신한국당 사무총장 주재 분과위원장단 간담회에 참석, 29일에는 63빌딩 별관2

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신한국당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 및 중앙상무위원회 제1차운영회의에 참석, 30일에는 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대토론회에 참석, 이어 하림각에서 열린 청와대 정무수석 초청 신한국당 분과위원장 만찬간담회에 참석, 31일에는 광양항 제물부두에서 개최된 제2회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5월15일 웅진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인 충청지역 어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21일에는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97 제1차EEZ어업대책 자문위원회에 참석, 22일에는 새어업인 수상자 3쌍을 시상, 이어 제2회 바다의날 기념 우리 수산물대축제 개장식에 참석.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5월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해양수산관련단체 업체 및 학계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97해안방지 세미나에 참석.

▲최상욱 남파도건주식회사 회장은 5월3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강경식 부총리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 이어 유네스코 광주전남 협회 학생연합회 전진대회에 참석, 6일에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광주지역협의회 임원회의에 참석, 9일에는 전국경생보호위원중앙회 간담회에 참석, 10일에는 한국대학검도연맹 97춘계전국대학검도연맹전에 참석, 15일에는 광주전남 21세기발전협의회의 이사회에 참석, 16일에는 5·18묘역 성역화사업 준공식에 참석, 18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22일에는 기독교광주방송 시청자위원회의에 참석, 26일에는 전남대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정기총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5월1일 제34회 법의날 기념행사에 참석, 17일에는

청소년범죄예방선도 서화백일장에 참석, 18일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23일에는 송원리조트 콘도 개관식을 거행.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5월2일 대한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인의날 행사에 참석, 16일에는 자유총연맹 이사회의에 참석, 19일에는 전경연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1일 남양건설 창립3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2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3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강경식 부총리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 16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참석, 16일에는 5·18 민중항쟁 진혼예술퉈제에 참석, 18일에는 5·18민주화운동 제17주년 기념식에 참석.

▲장정언 정한중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21일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조찬간담회에 참석, 29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 및 국무총리 초청만찬에 참석.

▲정운삼 대지중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5월 8,9일일간 산업시찰차 일본 후쿠오카지역을 방문, 17일에는 진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준공식을 거행.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중합건설 회장은 5월6일 여수공사현장에 출장.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국장급 △신항만기획관 이동원 △해양정책실 해양심의관 김성수 △안전심의관 안태환 △해운선원국장 민병성 △항만정책국장 신길웅 △수산정책국장 김민중 △어업진흥국장 배평암 △어촌개발국장 최낙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광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강신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김상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권수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용우 △부산지방해양수



한국어합협회 준우승 한국어합협회는 5월 2일 개최된 제2회 바다의날 기념 해양수산가족 친선테니스대회에서 동배 조 준우승을 차지했다.

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이종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김영남 □과장급 △비상계획관실 비상계획담당관 김인기 △신항만기획관실 기획담당 이상문 △건설1담당 이광호 △건설2담당 남대우 △해양정책실 연안역관리과장 정우섭 △안전정책과장 임기택 △해양방재과장 박재준 △선박기준과장 이종석 △선박안전과장 이은 △항로표지과장 허영규 △해운선원국 해운정책과장 김하진 △국제해운과장 한준규 △연안해운과장 이광로 △선원과장 김창남 △노경과장 임광수 △항만정책국 항만정책과장 김형남 △항만유통과장 박정천 △항만장비과장 나승렬 △항만건설과장 전진표 △항만기술과장 이용기 △시설안전과장 김형인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장 김영규 △유통기획과장 민병훈 △수산가공과장 김민영 △무역진흥과장 이인수 △어업진흥국 어업제도과장 오순택 △어업관리과장 나택균 △어선정책과장 안국전 △어업지도과장 박해용 △양식어업과장 김종규 △어촌개발국 어촌계획과장 박성욱 △어항개발과장 이진호 △어업인육성과장 서상범 △어촌지도과장 정영재 △자원조성과장 기호준 △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김윤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윤용진 △해무과장 유상정 △선원과장 조규섭 △항무과장

한상배 △항만운영과장 김용학 △어촌지도과장 김병수 △부산항건설사무소 관리과장 정재홍 △조사시험과장 강범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김명기 △해무과장 김웅 △항무과장 송완섭 △항만운영과장 손장현 △항로표지과장 정완주 △어촌지도과장 이금열 △인천항건설사무소 관리과장 신연식 △항만공사과장 김광석 △조사시험과장 조중환 △아산항건설과장 양태윤 △갑문관리소장 오세훈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소장 원용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권성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영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윤석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김효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진두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송여용 △동해지방해안심판원 수석조사관 조병용 △해양수산부 근무 송동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940번지 반포아파트 100동 302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535-1838.

회비납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금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제철) ▲정한중합건설주식회사(회장 장정언) ▲삼오중합건설주식회사(사장 임제호) ▲대지중합건설주식회사(회장 정운삼) ▲주식회사삼양사(사장 염민웅) ▲동화건설주식회사(회장 김중배) ▲성보건설산업주식회사(회장 박성태) ▲주식회사유일종합기술단(회장 이희운) ▲주식회사문원사(회장 김재극) □개인 ▲강호석씨(해양수산부) ▲김영수씨(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부장) ▲황대홍씨(우진수산주식회사 사장) ▲김진만씨(주식회사문원사 전무이사) ▲김시문씨(전 수산청 차장)

부음

▲고세진(주식회사우주종합건설 회장)씨가 지난 5월11일 별세했다. 장지는 전남 담양군 금성면 산영 선영.

변경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최근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산 8-6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번호:0391)661-8051. FAX:0391)661-8511. ▲손영수씨(전 한국어선협회 이사)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0번지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102동 601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0342)717-4891. ▲유간성씨(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사장)는 5월22일

어항 기능위주에서 국토보전차원 관리 완공항도 지속개발 지정항도 확대해야

어항정책심의회 간담회서 밝혀 어항개발을 단순한 기능위주의 개발에서 탈피하여 국토의 유지 보전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어항개발은 항만개발시의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볼 수가 없으므로 비경제적 측면인 어촌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재 완공항의 개념

을 재정립,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지정어항도 과감하게 확대 개발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지난 4월29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어항정책심의회 위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향후 어

항개발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농특세 투자가 끝나더라도 어항개발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어항관련 조직개편은 어항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친 여론수렴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어항은 시설이

완비되어야만 기능이 가능하므로 산만한 투자를 지양하고 완공위주의 집중투자가 절실하며 특히 2층어항의 경우 분산투자로 개발효과가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또 어항을 도시민과 어업인의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억 미만 공사 지정에서 집행 조달청, 조달행정 혁신안 마련

조달청은 58억3천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1백억원 미만 공사는 지정에서 입찰 및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이 마련한 조달행정 혁신방안에 따르면 현재 모든 경쟁입찰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을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58억3천만원 미만의 시설공사와 1억5천1백만원 미만의 국내입찰 대상 물품구매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기로 했

다. 또 지정에서 입찰 및 계약하는 공사를 현재의 58억3천만원에서 1백억원으로 확대하며, 1억5천1백만원 미만의 물품구매도 지정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물품대금을 청구 당일 지급되 당일 지급 못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정부에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우수제품등록창구를 통해 직접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으로 보는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 어항어촌

국제 어항 흐름인식 선진어항인과 교류

제10차 해외선진어항어촌 시찰 日어항협회 적극 협조 큰 성과

제10차 해외선진어항어촌 시찰단 24명이 9박10일 동안 일본, 뉴질랜드, 호주 지역의 어항어촌을 시찰, 큰 성

과를 거두고 5월28일 무사히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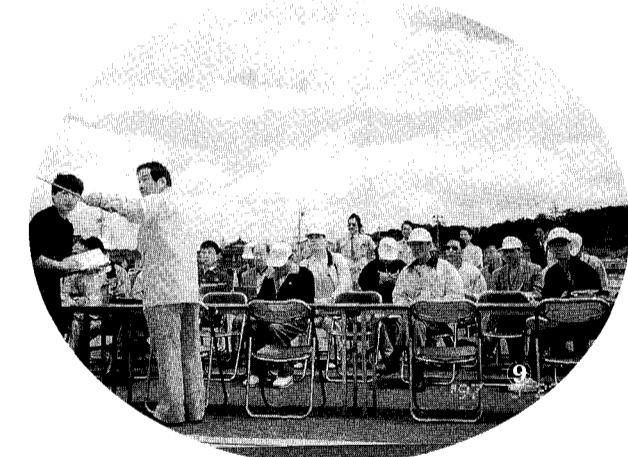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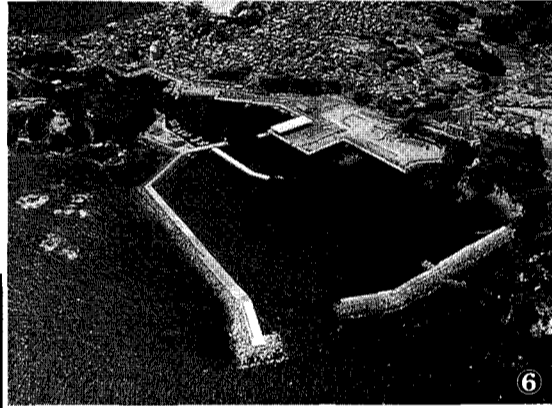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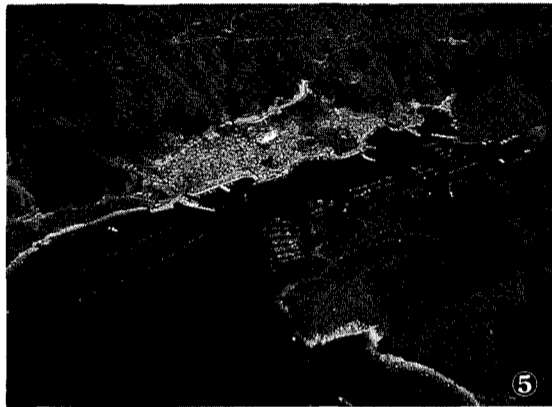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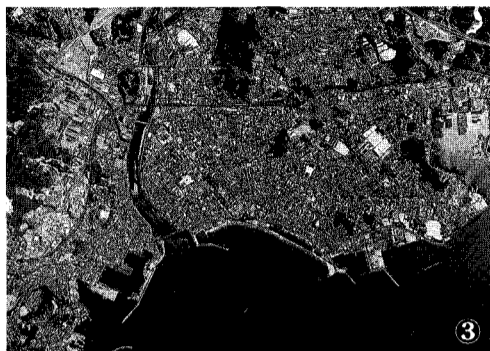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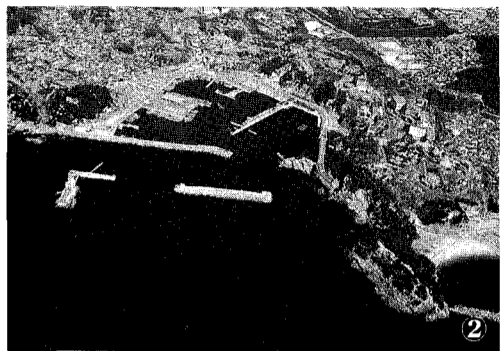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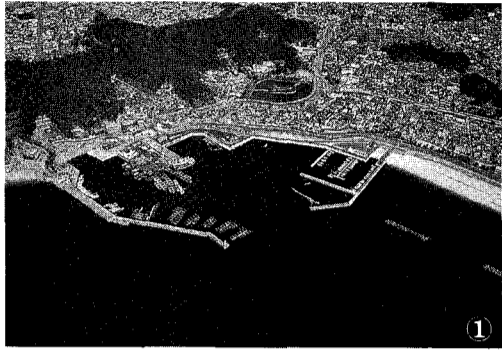
한국어항협회가 주관한 이번 시찰에는 예년과 같이 해

양수산부를 비롯한 각 시도 어항관련 공무원과 시공 용역기술회사의 임직원 등 어항관련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참여, 선진 어항어촌을 현지에서 직접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식견을 높이는 한편, 시찰국 어항관계자와 상호교

류를 통하여 우호를 증진했다. 이번 시찰단은 시찰국 어항관계자의 각별한 배려에 따라 성공적으로 시찰을 마쳤으며, 특히 일본 전국어항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찰어항의 항세, 시공기술, 시설현황, 관리방법 등 상세한 설명과 안내팸플렛, 화보 등 기술정보 자료를 제공받았다.

한국어항협회는 해외선진어항어촌 시찰단 파견을 통해 우리나라 어항개발의 촉진은 물론 어항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해안정비, 관광어항어촌 개발 등 새로운 정세에 대응할 어항어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매년 시찰단을 파견하고 있다.



① 일본 和歌浦(와카우라)漁港

이 어항은 자연의 해변을 살린 和歌縣의 관문으로서 1982년 제6차 장기계획에 이르기까지 어업의 근거지 및 유통의 거점으로서 정비되었다.

② 일본 雜賀崎(사가자키)漁港

1987년에 어항정비가 마무리된 이 어항은 어항관련 도로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③ 일본 田邊(타나베)漁港

이 어항은 1960년대 전까지 수차례의 지진과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어항이다.

④ 일본 知柄(치가라)漁港

이 어항은 제2차 대전후 어선의 수의 증가와 대형화로 인하여 1953년에 착공하여 1967년도에 완공하였다.

⑤ 일본 三木浦(미키우라)漁港

이 어항은 수심이 깊고 평온한 수역을 지니고 있는 천연의 양항이며, 해상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⑥ 일본 波切(나키리)漁港

황금어장과 인접한 이 어항은 원양어획물 양륙항으로 이용되어 대형화한 원양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어항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⑦ 뉴질랜드 오클랜드항

오클랜드항은 요트정박항에서부터 어항, 여객선항, 컨테이너항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규모를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⑧ 호주 캠블라항

호주 최대의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주변에 제철, 석탄공장, 기타 산업시설이 있는 항만으로 방파제 및 돌제 시설은 있으나 태풍·폭풍이 없는 자연의 특성때문에 특별한 기술없이 돌을 쌓아 만든 항만이다.

⑨ 일본 知柄(치가라)어항에서 현지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시찰단 일행

- ▲ 저희 새한월드여행사는 '91년부터 해외 INCENTIVE연수 전문업체를 담당해 왔습니다. (수협중앙회, 선정)
- ▲ 일본 및 호주 뉴질랜드 해외선진 어항어촌시찰단을 안내하였습니다.
- ▲ 고객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영 업 안 내

- | | |
|----------------|----------------------|
| 1. 해 외 여 행 알 선 | (개인, 단체, 효도관광) |
| 2. 여권및각국비자수속 | (무료대행 신속정확) |
| 3. 국제선항공권판매 | (세 계 각 국) |
| 4. 해외유학,연수안내 | (세 계 각 국) |
| 5. 호텔및리조트예약 | (세 계 각 국) |
| 6. 해외교통편의제공 | (기차, 선박, 버스, 리무진등) |
| 7. 해 외 신 혼 여 행 | (결 혼 기 념 등) |
| 8. 성 지 순례 안내 | (안식교, 가톨릭, 천주교, 불교등) |



공정적 사고·적극적 행동



(주) 새한월드여행사

代表理事 許 順 寧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13-21호
TEL:(02)538-0898(대) FAX:(02)552-8044



골다공증

술·담배·커피 등 피하고
우유 등 충분한 칼슘 섭취

골다공증이란 몸안에서 칼슘 성분을 흡수 새성시키는 골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뼈조각이 물러지는 병이다.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대표적인 노년기 퇴행성 질환으로 꼽히는 골다공증 환자가 급증, 국내에 2백만명 이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운동부족인 현대 생활에 짬뽕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독특한 식성까지 겹쳐 특히 골다공증이 중년 이후의 사무직 근로자와 폐경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병이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뼈는 세포와 골기질로 구성돼 있으며 교환질이 풍부하며 끊임 없이 적은 양의 뼈가 부서지고 대체된다. 즉 재 조형은 계속되지만 이때부터 골량은 늘지않고 줄어들기 시작한다.

남성의 경우 노령에 이르기까지 일정하게 국소량씩 줄어들지만, 여성의 경우는 건강상태가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뼈의 손실이 많아지는 30대 후반부터는 골다공증에 걸리게 될 확률이 남성에 비해 6배가 높다고 한다. 특히 폐경기 이후 몇 년 동안 매년 전체 골량의 2-4%씩 상실하게 되는데 이같은 까닭은 폐경후 골손실을 방지해 주는 에스트로겐이란 호르몬이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폐경을 전후해 얼굴과 앞가슴 부위에 화끈거리는 발열감과 식은땀 외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 불안, 초조, 불면증과 함께 잦은 요로의 여러번 화장실을 찾게된다.

이런 증상들은 비교적 초기에

나타나 2-3년 후 자연히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팔의 상박부골절, 고관절골절, 척추뼈의 압박골절을 일으키기 쉽다. 골다공증에 의해 골밀도가 성글어져 쉽게 부러지거나 부서지게 되기 때문이다.

일단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정상으로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평소에 술, 담배, 커피 등 칼슘을 빼앗는 기호품을 줄이고 우유 등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하루 1천2백mg, 일반성인은 1천mg, 중년폐경기 여성은 1천5백mg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백mg, 요구르트 한 컵에는 약 3백mg의 칼슘이 들어 있다. 멸치, 정어리 등 뼈째 먹는 생선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다.

평소에 커피를 많이 마신 여성일수록 골밀도가 줄어 들고 반면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에게 선은 이같은 골밀도 감소효과가 상당히 상쇄된 것으로 밝혀졌다.

칼슘제제를 복용할 때는 몸안에서 빨리 녹고 흡수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잘 용해되지 않는 칼슘제제는 별 도움이 안된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주에 3-4회씩 30분-1시간 동안 걷기와 조깅을 하면 뼈형성과 뼈강화에 도움이 된다. 과거에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의사와 상의해 자신에게 적절한 운동을 선택한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7)

第2章 浚渫工

2.1 공법·공사의 개요

2.1.1 개 설

준설공은 수역시설의 선로 및 박지를 조성하는 공사로 일반적으로 수면 아래의 토사를 파서 그 토사를 다른 장소로 사토하는 공사를 말한다. 준설공사에는 새로운 항로나 박지를 만들기 위한 신설공사, 폭을 넓히거나 수심을 증가시키는 개량공사,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공사, 방파제나 암벽 등 수중구조물 기초저굴착공사, 매립을 위한 토사채취공사, 환경대처를 위한 해저의 오폐물제거공사 등이 준설공사에 포함된다. 굴착공사(3.2 굴착공참조)나 토사채취공사와 오폐물제거공사는 일반의 준설공사와는 시공정밀도 등이 다르다.

2.1.2 준설용 작업선의 종류

준설용 작업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그래브준설선 (쇄암겸용)
- 펌프준설선
- 디퍼(백호우)준설선
- 버킷준설선
- 드래그석션 (drag suction) 준설선

2.1.3 사전조사

준설공사의 계획과 준설선의 기중 선정에 있어서는 기상·해상 및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추진한다. 준설공사의 기중선정 등에 필요한 조사항목을 표 2.1.1에 제시한다.

항 목	세 목
① 토 질 조 사	N치, 일축압축강도, 비중, 입도분포
② 수 심 조 사	
③ 준 설 토 량 산 정	말고 적출
④ 준 설 면 적	넓고 좁음
⑤ 준 설 깊 이	
⑥ 토 사 운 반 거 리	
⑦ 토 사 처 분 방 법	
⑧ 마 무 리 정 량 방 법	
⑨ 기 상 · 해 상 조 사	풍속, 파고, 파주기, 조석류
⑩ 지 형 조 사	
⑪ 관 측 경 계	수질, 저질, 수온, 진동, 오염방지
⑫ 작 업 제 한 요 인	오염물 탐사, 선박교통량
⑬ 일 수 가 능 성	
⑭ 공 사 기 간	
⑮ 경 제 적 성	

그림 2.1.1 조사항목

(1) 심천측량

준설공사를 하기 위한 심천측량은 크게 나누어서 다음 세가지로 분류된다.

- a.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측량
- b. 시공중의 관리측량
- c. 준공확인측량

심천측량은 음향측심기 (echo sounder)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음향측심기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구조물 전면이나 수심이 매우 얇은 경우 등 음향측심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는 레드 (lead), 스태프 (staff; 표척) 등으로 하는 수도 있다.

측량전후 또는 중간에 하는 측심기의 바체크 (bar check)나 조위표의

확인도 중요하다. 측량범위는 준설구역뿐만 아니라 비탈면부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외측까지 할 필요가 있다. 측량간격 (미측심폭)은 측량의 목적, 소요정밀도, 사용기기, 해저의 기복상태등을 감안하여 대략 10-20m 정도로 하는 일이 많다. 이에 따라 선박위치측량이나 선박위치유도 등의 측량준비를 한다.

(2) 토질조사

준설공사의 시공방법을 검토할 경우는 해저토사의 비중, 토입자의 입도 등을 조사한다.

대체로 준설공사의 토질조사로서는 입도분석, 비중시험, 표준관입시험으로 거의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조사결과는 그림 2.1.와 같이 정리하여 이용한다.

(3) 수질조사

공사개시전의 수질조사는 공사구역, 주변해역의 오폐물의 정도 (백그라운드 (back grand)치)를 특정하는데 있다. 준설공사중의 수질조사결과는 백그라운드치와 비교하여 준설공사로 인한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는데 있다.

(4) 저질조사

준설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해저토사를 사토할 경우는 준설토사에 함유되는 유해물질이 「해양오염방지법」 규정범위내임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배상제도

공공시설 등으로 인한 손해 정부에서 배상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량, 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군 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 양식이 있음),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 수입액 증명서, 치료

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 (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 수입액 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월 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 토지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 기타 손실의 경우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배상결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 배상신청 기각결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배상금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지방검찰청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군부대 각 특별회계기관(철도청 등)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 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신청을 하지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제기도 할 수 있다.

국가배상제도의 장점 간편한 절차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 제출

만으로 배상해 준다(소송제거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이 들지 않음).

충분한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때와 같은 실손해액을 받는다. 기회보장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국가배상은 먼저 배상 신청을하여 그 결정대로 배상금을 받거나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상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배상신청 장소

가.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의 신청장소(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아래 배상심의회)

나.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국방부 각급 사단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 - 문의처 : 국방부 국제법과(전화번호 02-748-6838)

명 칭	전 화 번 호
서울지구배상심의회	02 - 530 - 4532
인천지구배상심의회	032 - 424 - 1121
수원지구배상심의회	0331 - 210 - 4571
춘천지구배상심의회	0361 - 51 - 5432
대전지구배상심의회	042 - 255 - 9861
청주지구배상심의회	0431 - 66 - 8111
대구지구배상심의회	053 - 753 - 3201
부산지구배상심의회	051 - 254 - 8081
창원지구배상심의회	0551 - 64 - 3311
광주지구배상심의회	062 - 231 - 4672
전주지구배상심의회	0652 - 71 - 5151
제주지구배상심의회	064 - 53 - 5171

생 활 정 보

생 활 정 보